

# “김연아 金, 대한민국 最高의 영광”

##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연아 선수 격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1월23일 경기도청 집결실에서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를 만나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 지사는 “너무 잘한다. 날아다니는 듯 했다”며 “금메달을 딸 줄은 정말 몰랐다. 외모가 나와 달리 너무 예쁘고 모든 조건도 좋아 보인다”고 칭찬하고 경기장에서 마련한 크리스탈 우승기념패와 꽃다발을 증정했다. 또 김 지사는 “연습과정을 보며 부상을 염려했다. 특히 등에 기구를 달고 메달리는 연습을 방송을 통해 봤는데, 아찔아찔 했다”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기도에 말해달라”고 평소 김연아 선수의 파이팅에 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어머니 박희희씨와 동행한 김연아 선수는 “과천 빙상경기장의 빙

질이 피겨하기에 적합해 주로 연습을 했다”며 “많이 생각할 때는 체중조절에는 큰 어려움이 없

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1월23일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를 초청해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사진은 이날 경기도청을 방문한 김연아 선수와 어머니 박희희씨)

# 오페라 ‘나비부인’ 의정부 公演

12월16일 · 17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

경기도내 문예회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경기지역 문예회관협의회가 협력하여 만든 송고한 사랑의 오페라 “나비부인”이 12월 16일 오후5시와 17일 오후4시 2회에 걸쳐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무대에서 선 보인다. 오페라 공연에는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오케스트라 부원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예술감독 임현정, 오페라 지휘에 정통한 지휘자 김덕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및 미스 사이공의

연출가 김학민, 합창음악과 오페라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의정부시합창단이 함께 출연하는 오페라의 화려한 제작진과 출연진의 작품을 볼 것으로 보인다. 오페라 나비부인은 일본 나가사키에 주둔해 있는 미해군 중위 핑커톤이 일본의 몰락한 귀족 딸 게이샤 초초(나비부인)와 결혼식을 올리면서 오페라 나비부인 제1막이 시작된다. 곧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핑커톤은 미국으로 떠나 버리고 3년 뒤 미국 여인과 결혼해 다시 나가사키로 돌아왔는데 나비부인은... 이어 나비부인은 친자식처럼 키우겠다는 케이트의 말에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의 유품인 칼을 꺼내들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껴안고는 아이의 눈을 가리고 병풍 뒤로 들어가 목숨을 끊을 때 핑커톤이 등장해 자결한 나비부인을 보고 울부짖으며 막이 내려진다. 아름다운 이탈리아 풍 선율이 기억에 남는 오페라 나비부인은 나비부인이 노래하는 아리아 “어떤 개인날”과 수병들이 노래하는 허밍코러스가 특히 유명하다. 나비부인은 존 루터 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데이비드 벨라스코의 연극을 토대로 만들었으며 푸치니가 정통 일본 민요의 톤을 사용한 최초의 오페라로 탄생시켰다. 또한 푸치니의 경쟁자들의 행포로 나비부인의 초연은 삼척편인 실패로 끝났지만 토스카니의 충고를 받아들여 2막을 2장으로 다시 나누고 몇 가지 수정을 기한 나비부인은 대성공을 거뒀다. 특히 나비부인은 푸치니가 자신의 인생 마지막까지 가장 좋아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천보산 바위에 그려진 미군부대 마크 제거

## 훼손된 자연경관 복원으로 시민 등산 이어질 듯

20-30년전 미군장병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천보산 중턱 바위의 미군부대 마크가 자연경관 훼손 및 시민들의 뜻에 따라 11월 22일 산악회원, 미군장병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거됐다.

525㎡(15m x 35m)크기의 미군부대 마크 제거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한미협력실무협의회 안전으로 상정해 11월16일 미2사단 관계자

들이 직접 천보산을 암벽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제거기로 합의했다. 작업공간이 45°경사사 암벽지대로 작업에 위험성이 매우 커 작업 참여자들도 암벽 등반 경험이 있는 자와 제2소방본부, 전문 산악모임의 지원을 받아 8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마무리 되었다. 이날 작업에는 발전기와 전동 연삭기, 쇠 브러쉬 등 전문 작업도구가 동원되었으며,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약물은 사용하지 않았다. 시는 금오동 소재 천보산 바위에 그려진 미군부대 마크가 제거됨에 따라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에 많은 시민들이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미군장병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천보산 바위에 그려진 미군부대 마크를 제거하고 있다.

#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겨울나기

## 의정부3동 새마을부녀회 700포기 김장나누기

의정부시새마을부녀회는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11월22일 의정부3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실시했다. 의정부3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및 통장 50여명은 초겨울 쌀쌀한 날씨 속에서 경제적, 심적으로 어렵게 살고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배추 700포기로 김장을 담갔다.

정성스럽게 담은 김장배추는 그동안 부녀회원 및 새마을지도자들이 1년 내내 휴경기에서 직접 밭을 갈고 재배한 배추와 무, 각종 양념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날 김장김치는 관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100가구의 가정



의정부3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및 통장 50여명은 초겨울 쌀쌀한 날씨 가운데 경제적·심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배추 700포기로 김장을 담갔다.

# ‘장흥아트파크, 藝術的 충격’

## 김문수 경기도지사 양주시 장흥아트파크 訪問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1월22일 양주시 장흥면 장흥아트파크를 방문해 조각공원과 미술관, 어린이체험관, 아뜰리에를 둘러보고 관계자들에게 향후 경기도 문화 분야에 도움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권두현 행정제2부지사, 임충빈 양주시장 등과 함께 아트파크 조성을 맡은 이호재 가나아트센터 회장의 안내로 총 1만2천평 규모의 공원과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이뤄진 미술전시관을 밤 늦도록 꼼꼼히 둘러봤다. 김 지사는 “장흥 아트파크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제게는 충격”이었다며 “260여원이 든 경기도립미술관, 그리고 도립박물관 등 비교가 안된다. 앞으로 많은 지적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경기도는 1천여원을 들였고, 여기는 거의 공짜로 아트파크를 만드셨다”며 “예술적 충격”이라고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 김지사는 “경기도의 문화 분야 평가작업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싶다”며 “경기도의 박물관 미술관 등 조성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산재예방사업 지속적 홍보

## 경기북부지역 출입기자 간담회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俞載三)은 11월28일 원장실에서 관내 경기북부신문사 등 출입기자 5명을 대상으로 지도원

이번 간담회는 향후 지역신문 등 언론기관과의 유대강화와 산재예방사업의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과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기로 의견을 나누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재삼)은 11월28일 포천신문사 등 출입기자 5명을 대상으로 지도원과 언론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랑의 연탄불을 피워요”

## 한우리가족봉사단 사랑의 연탄나누기 활동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연탄 한 장조차 부족해 추위에 떨고있는 수많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접 연탄을 구입, 배달해 그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연탄나누기 행사를 11월25일 의정부시관내 독거 어르신 등 10세대에 전달했다. 이날 연탄 나누기 행사에는 한우리가족봉사단 1기 7가족 27명과 2기 12가족 42명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관내 독거 어르신과 차상위 계층 10세대에 1천900장의 연탄을 구입해 배달했다. 자원봉사센터는 ‘사랑의 연탄불을

피워요’ 라는 주제로 독거 어르신과 차상위 계층 등 소외된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연탄나누기행사를 갖게 되었으며, 회원들과 가능동지역 자연부락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가구 당 150-200장씩 전달했다. 한편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한우리가족봉사단과 협조해 우리시 관내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나누기, 빨래해주기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렵게 살고 있는 독거 어르신과 차상위 계층을 방문해 1천900장의 연탄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 사랑의 김장 담아주기 행사

## 100일간 사랑 릴레이 배턴 잇기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노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김장 담아주기 행사가 11월 19일 외미경로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00일간 사랑 릴레이 배턴 잇기’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의정부시 호원2동 통장협의회에서는 매년 어려운 가정



추진해 온 일로 이웃간의 훈훈한 정을 베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동절기를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경기도 자연경관 文化財 사진전

## 제4회 김광수 개인전 I LOVE KYEONG GI

쉽 없는 노력으로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고 활기찬 작품 활동을 통해 사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김광수 작가가 개최한 제4회 개인전 I LOVE KYEONG GI가 11월20일부터 22일까지 의정부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경기도 31개시군의 자연경관과 대표적인 문화재를 소재로 한 작품이 전시됐다. 제4회 전시회를 개최한 김광수 작가는 “그동안 서울을 소재로 한 개인전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경기도를 소재로 한 경우는 없는 것 같

아 용기를 내어 떨리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중추 출생으로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경기북부사진연구회 회장으로 활동중이며 경기예술대상 공로상,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외 120여회 입상 및 입선한 작가이며 현재 의정부시에서 드림포토스튜디오를 경영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광수 작가가 제4회 개인전 I LOVE KYEONG GI가 11월20일부터 22일까지 의정부시청에서 개최됐다.

# 이삭의 집 방문 봉사

## 공직자 1% 나누기 동호회

의정부시 직원들로 구성·운영되어 온 ‘공직자 1%나누기 동호회’가 11월19일 아동복지시설인 이삭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봉사활동으로 목욕탕 및 강당 청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동호회 적립금 50만원을 성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한 지방행정서기보 김보 직원은 “출산을 앞두고 아이들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은 하루였으며,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니 더욱 기쁘다”고 하루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신현영 장안동장은 “연일 계속되는 행사와 당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이용해 직원들이 출근수범하여 몰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사랑나눔 실천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관계자가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 직원들로 구성·운영되어 온 ‘공직자 1%나누기 동호회’가 11월19일 아동복지시설인 이삭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참여와 나눔의 희망세상’

## 2006 여성자원활동가 한마음대회

의정부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점순)는 11월21일 청소년회관에서 김문원 의정부시장, 도·시의원 등 350여명의 여성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이 만드는 참여와 나눔의 희망세상!’이라는 주제로 2006 여성자원활동가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상을 밝히는 힘 여성 자원활동가’라는 주제로 자원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오후에는 자원봉사단체 및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해 올 한해 동안의 기량과 실적을 겨루고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올해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 실시했으며, 경진대회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와 여성자원봉사단체 및 각 동아리팀에서 총 12개팀이 출전해 활동사례 발표와 공연 등을 3시간 동안 다채롭게 펼쳤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중인 단체의 다양한 활동사항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흥겨운 노래와 춤 등 여성의 다양한 역량을 재확인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에 심기 일전하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날 행사는 제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상을 밝히는 힘 여성 자원활동가’라는 주제로 자원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오후에는 자원봉사단체 및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해 올 한해 동안의 기량과 실적을 겨루고 여성단체 활동



의정부시여성단체협의회는 11월21일 여성이 만드는 참여와 나눔의 희망세상이라는 주제로 2006 여성자원활동가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